

도, 여름철 산사태 대응 행정력 총동원

도·시군 산림부서 '산사태 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 위험경보 신속 전파·주민대피 등 대응관리에 집중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산립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괄 집중한다.

전북자치도는 산사태 예방·대응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평상시에는 기상 상황에 따른 예방 활동을 하고,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 상황전파, 주민대피 안내, 피해상황 파악, 현장지휘, 조사복구 등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산사태 정보시스템' 예측에 따라 거주민에게 긴급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대피토록 조치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도청 산림복지과에 △상황총괄반(기상정보, 상황보고 및 전파, 주민대피 안내 등) △현장지휘반(피해집계 및 응급복구 현장지휘) △조사복구반(피해상황 파악, 복구계획 수립) △근무지원반(현장 인력·장비 지원 및 물자 보급) 등 4개반 20명으로 상황실을 편성했다.

호우·태풍특보 및 산사태 위험경보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14개 시·군도 개별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도는 사전 산립재해 예방 활동으로 우선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

한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32명)도 조기에 운영해 인위적 개발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2,411개소)을 집중점검하고 피해예방 응급조치, 주민대피 안내·홍보를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산사태 예측 정보의 실용화를 위해 '산사태 정보시스템' 상 주민 연락망, 대피소 정비, 점검 노력 등을 현행화해 비상연락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도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1,100개소) 실태조사도 우기(6월) 이전에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산사태 우려지는 장마철 전에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해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해 도민 인명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산사태에 취약한 거주민께서는 평상시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재난문자, 안내방송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산립재해 피해지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총 복구액 47억원을 투입해 △산사태 27개소(12.9ha) △임도 17개소(2.7km) 등 44개소를 본격적인 우기(6월) 이전 조기 준공을 목표로 시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올해 산립 재해예방에 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268억 원을 투입해 △사방담 52개소 △계류보전 30개소(30km) △산지사방 14개소(14ha) △산림유역관리 2개소 등 98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이만호기자



5월 소통의 날 행사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영장에서 열린 5월 소통의 날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과 명사로 초청된 박성민 정치컨설팅 MIN대표를 비롯한 청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청사 내 북도갤러리.

도 인재개발원, 북도갤러리로 깜짝 변신

2021년부터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과 협업해 매년 실시

전북자치도가 인재개발원 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일상 속 작은 휴식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은 청사 내 유휴공간에 지역작가의 개성 있고 다채로운 미술작품을 소개하고자 7월까지 북도갤러리를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북도갤러리는 지난 2021년에 체결된 남원시-전북인재개발원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처음 시작해, 해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과 협업하여 인재개발원을 방문하는 교육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남원 출신 작가의 미술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추진돼 오고 있다.

올해도 김병종미술관과 함께 인재개발원 청사 2층 북도에 갤러리 공간을 조성해 7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오치근의 그림 여행'이라는 주제로 그림책 원화 39점을 전시하고 있다.

초청 작가인 오치근 화백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남원 출신의 예술가로, 20여 권이 넘는 그림책을 출간했고 다양한 채색과 한국적인 그림체로 독자적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백석 시인의 동화 시를 그림책으로 펴낸 '오징어와 감복', '집게네 네 형제', '개구리네 한술밥' 등 오치근 작가의 작품과 오 작가가 딸 은별과 함께 그린 '섬진강, 지리산 그림여행'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인재개발원은 오치근 작가 초청 강연과 별도 휴게공간에 그림책을 비치하는 등 미술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쾌적한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기자

전북자치도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보상금 결정서 송부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북자치도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에 대해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신청 받는다.

18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이로 인하여 재산의 피해를 당한 어업인의 보상을 위해 2021년 5월 '내수면 손실보상 특별법'

이 제정되었다.

올해 4월 3일 해수부에서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에서 관할 어업인 보상신청 접수 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해수부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심의 후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보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고, 결정서 정보를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수부에서

보상금을 어업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운영 운영사무국(061-650-6980)에 문의할 수 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도내 어업인의 보상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2024년 전북 청년직무인턴 하반기 참여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하반기 전북 청년 직무인턴 사업 참여자 168명을 이달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전북 청년 직무인턴'은 도내 청년들이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특색있는 청년 지원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참여 대상을 기존 도내 대학생에서 도내 청년(18~39세)으로 확대했다.

1~2월에 운영된 2024년 상반기 인턴십은 152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하반기에는 168명을 모집해 총

320명의 청년에게 인턴십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인턴십은 한국수자원공사, 국립새만금강변박물관, 익산문화관광재단 등 8개의 신규기관을 포함해 총 41개소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직무인턴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모집기간 내 전북 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홈페이지(www.jbintern.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된 청년은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5주간 직무체험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턴기간 중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하며, 실천 경험과 더불어 취업 관련 지식까지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만호기자

부안군 공고 제2024-869호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재열람공고

부안군 번산면 격포리 284-44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안)의 부안 군계획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부안군 군계획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재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 1.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사항 가. 군계획시설(광장:경관광장) 결정(변경) 조서 - 당초 결정(변경) 신청(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01	광 장	경관광장	번산면 격포리 284-44일원	4,928	감12,343	2,585	부안군 공고 제2019-87호 (2019. 5. 17)	

■ 군계획시설(광장:경관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801	광 장 (경관광장)	면적 축소 : 4,928㎡ - 기 정 : 4,928㎡ - 변경 후 : 2,585㎡	기포해수욕장 진입로 경관광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원시성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기포 오성원명파크 조성사업, 숲속 휴게소 조성사업 등 관련사업의 입주를 제

나. 군계획시설(광장:경관광장) 결정(변경) 조서 - 심의의견 반영(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01	광 장	경관광장	번산면 격포리 284-44일원	4,928	감11,967	2,941	부안군 공고 제2019-87호 (2019. 5. 17)	

■ 군계획시설(광장:경관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801	광 장 (경관광장)	면적 축소 : 4,928㎡ - 기 정 : 4,928㎡ - 변경 후 : 2,941㎡	기포해수욕장 진입로 경관광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원시성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기포 오성원명파크 조성사업, 숲속 휴게소 조성사업 등 관련사업의 입주를 제

- 2.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안) 관계서류 : 실용·생태(제열람장소 비치)
- 3. 재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05. 17. ~ 05. 31. (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이상)
- 4. 재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부안군 새만금도시과(☎063-580-4701) 및 관광과(063-580-4739)
- 5. 의견제출 방법 :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 및 관광과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서면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안군 새만금도시과 도시계획팀(☎063-580-4701) 및 관광개발팀(☎063-580-47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부안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